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입법·정책 기능을 활성화했다.

대전광역시

道花 : 백목련 **市鳥** : 까치

市木 : 소나무 **캐릭터** : 한꿈이

시청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시장 : 권선택(權善宅)

개 관

연혁 대전은 상고시대 마한의 변방에 속했다가 백제시대에 우술군, 통일신라시대에는 비풍군으로 불렸으며 고려시대 들어 회덕현, 진잠현으로 불렸다. 조선시대에 회덕군, 진잠군이 됐다. 1905년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대전역이 설치되어 점차 일본인 거류민이 이 지역에 거주하기 시작했다.

일제치하인 1914년 3월 회덕군, 진잠군과 공주군 일부가 합쳐져 대전군 대전면이 설치된 후 1931년 4월 대전읍으로 승격됐고, 1932년 10월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됐다.

1935년 10월 대전부로 승격됐다가 광복 후인 1949년 8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대전시로 개칭됐다.

1952년 4월 최초로 지방의원 22명이 선출됐으며, 1963년 1월 대덕군 회덕면 일부와 유천면 전역을 편입, 시세를 확장했고 1971년 7월 1일 출장소제를 도입, 동·서·중·북부 출장소 등 4개 출장소를 뒀다.

1977년 9월 1일 구제를 도입해 동구와 중구를 뒀고, 1983년 2월 15일 행정구역 확대로 유성 등 광대한 지역이 편입돼 유성출장소를 뒀으며, 1988년 1월 1일 서구를 신설해 3개 구가 됐다.

1989년 1월 1일 대덕군 지역을 편입시켜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유성구와 대덕구를 신설해 5개 구로 재편됐다. 또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1995년 1월 1일 다른 직할시와 함께 광역시로 개칭됐다.

1999년 9월 정부대전청사가 개청되어 제2의 행정수도시대를 맞이했고, 2000년 1월 1일 시청사를 중구 대흥동에서 서구 둔산동으로 이전해 둔산시대의 막을 열었다.

2005년에는 대덕연구개발 특구 출범과 함께 세계 초일류 혁신클러스트 구축, 행정중심복합도시 합헌 결정 등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비약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으며, 2007년도 4월에는 도시철도 1호선이 완전 개통됐다.

2009년도에는 흥명상가와 중앙데파트가 35년 만에 철거됐고, 56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됐으며, 10월 국제우주대회에는 72개국 4천 명(외국인 2천200명)의 우주전문가가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011년도에는 세종시 원안추진이 확정됐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입지로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신동·둔곡 지구가 선정됐다.

2012년도에는 세종시가 공식 출범했고, 충남도청이 중구 대흥동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전했다. 도시철도 2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충청권광역철도와 함께 철도중심의 광역교통망 형성에 한발 다가섰다. 5월에 개최된 대전세계조리사대회에는 42만 명이 관람했고, 처음 개최된 국제푸드&와인페스티벌에는 18개국 52개 와이너리 등 117개 와인협회와 단체가 참가, 35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했다.

2013년도에는 창조경제 전진기지 공식화, 과학벨트 정상추진, 엑스포 재창조 방향 정립 등 대전의 미래발전 토대를 마련했고, 세종시 2단계 이전, 충청권광역행정본부 추진 등 충청권 협력을 강화했다.

2014년도에는 민선6기 출범으로 시민행복위원회, 직소민원 현장시정실, 명예시장제 운영 등 경청과 화합으로 시민과 소통하면서 시민의 시정참여를 제도화하고, 시민통합을 실현해 대전을 살맛나게 만들어 가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했다.

2015년도에는 시민중심, 경청, 통합의 기초 아래 충청권 광역철도망 예타통과, 산업단지 재생사업 기공, 사이언스 콤플렉스 등 누적된 현안사업을 정상궤도에 진입시키고, APCS, 국방신뢰성 시험센터 등을 유치했다.

면적·인구 2015년 말 현재 총면적은 538,99km²로 유성구가 176km²로 가장 크고, 동구가 136.7km², 서구 95.5km², 대덕구 68.69km², 중구 62.1km² 순이다. 총 인구는 59만7천8가구에 153만5천191명으로 집계됐다.

* 대전광역시 행정구역

(2015년 12월 31일 현재)

구분	면적(km ²)	법정동	행정동	통	반
합 계	538.99	177	79	2,469	13,892
동 구	136.70	45	16	377	2,036
중 구	62.10	26	17	406	2,342
서 구	95.50	27	23	776	4,560
유성구	176.00	53	11	557	3,106
대덕구	68.69	26	12	353	1,848

재 정

2016년도 시 분청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2조8천7억원과 특별회계 1조540억원으로 총 3조8천547억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조2천540억원, 세외수입 745억원 등 자체수입이 1조3천285억원이며, 지방교부세 4천900억원, 국고보조금 8천221억원 등 의존수입이 1조3천121억원, 지방채 180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6.8%이다.

일반회계 세출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3천905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천41억원, 교육분야에 2천769억원, 문화 및 관광에 1천670억원, 환경보호 662억원, 사회복지 1조217억원, 보건 519억원, 농림해양수산 338억원, 산업·중소기업 563억원, 수송 및 교통 2천390억원, 국도 및 지역개발 1천391억원,

❖ 2016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항 목	예 산 액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 계	3,854,686	2,800,685	1,054,001
지방세	1,254,049	1,254,049	-
보통세	1,086,110	1,086,110	-
취득세	321,000	321,000	-
주민세	5,600	5,600	-
자동차세	198,700	198,700	-
레저세	18,600	18,600	-
담배소비세	88,640	88,640	-
지방소비세	202,670	202,670	-
지방소득세	250,900	250,900	-
목적세	156,439	156,439	-
지역자원시설세	30,380	30,380	-
지방교육세	126,059	126,059	-
지난연도 수입	11,500	11,500	-
세외수입	761,968	74,473	687,495
경상적 세외수입	64,522	59,408	5,114
임시적 세외수입	697,446	15,065	682,381
지방교부세	506,674	490,000	16,674
보조금	985,883	822,094	163,789
국고 보조금	985,883	822,094	163,789
지방채	18,000	18,000	-
국내 차입금	18,000	18,000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28,112	142,069	186,043

※특별회계 : 1조540억원(기타 특별회계 3천935억원, 공기업특별회계 6천605억원) / 2016년 본예산 기준

❖ 2016년도 대전광역시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항 목	예 산 액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 계	3,854,686	2,800,685	1,054,001
일반공공행정	390,522	390,522	-
공공질서 및 안전	131,551	104,141	27,410
교육	276,935	276,935	-
문화 및 관광	167,041	167,041	-
환경보호	293,663	66,191	227,472
사회복지	1,215,800	1,021,711	194,089
보건	51,915	51,915	-
농림해양수산	33,784	33,784	-
산업·중소기업	56,326	56,271	55
수송 및 교통	281,133	239,000	42,133
국토 및 지역개발	620,920	139,102	481,818
과학기술	33,390	33,390	-
예비비	28,611	28,611	-
기타	273,095	192,071	81,024

※특별회계 : 1조540억원(기타 특별회계 3천935억원, 공기업특별회계 6천605억원) / 2016년 본예산 기준

과학기술 334억원, 예비비 및 기타 2천207억원 등이다.

특별회계 1조540억원을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 1천201억원, 하수도사업 1천74억원, 지역개발기금 4천331억원, 주택사업 3억원, 교통사업 296억원, 광역교통시설 81억원, 의료급여기금 1천941억원, 도시개발 211억원, 산업단지 30억원, 도시철도사업 19억원, 학교용지부담금 137억원,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억원, 기반시설 4억원, 경부고속철도변경비사업 101억원, 소방안전 1천111억원이다.

중점 추진사업

대규모 국책사업 및 행사 유치 성공 2015년 민선6기는 실질적인 원년으로 시장 성과 창출을 위해 매진한 결과 25개의 현안사업이 해결되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해냈다’는 자부심을 안겨주었다.

국방 ICT 융합 생태계 조성 및 국방산업 거점도시 지위를 선점할 수 있는 국방신뢰성 센터 유치와 세계 100여 개의 도시가 참여하는 2017 APCS를 3번의 도전 끝에 성공시켰다. 또, 세계 60여 개국 장·차관 등 3천여 명이 참가하는 과학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누적된 현안사업 정상궤도 진입 충청권 광역철도망은 사업 계획 7년여 만에 1단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대전 도시철도 3호선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고 노후산단 재생 및 행복주택 건립으로 20년간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대전산단 재생사업을 착공했다.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 및 시민편익을 위한 사이언스콤플렉스 협약 체결로 엑스포 재창조사업을 본격화하고, 생태호수공원 및 쾌적한 정주환경조성을 위한 갑천 친수구역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취약 계층을 위한 경제·복지사업 본격 추진 행복경제 1, 2, 3일자리 10만 개 창출, 강소벤처기업 2천 개 육성, 국내총생산 3% 달성) 프로젝트를 추진해 대전의 경제를 키우고 안정된 고용창출을 통한 경제체질을 개선했다. 전국 최초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청년인력관리센터 및 비정규직 지원센터, 건설일용근로자 센터를 운영해 서민경제 안정화에 힘썼다.

대전시민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소년위캔센터, 손소리 복지관,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개관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와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영역별 복지실현에도 힘써왔다.

미래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동력 확보 원도심 지식산업센터 및 대전디자인센터 건립비 등 역대 최대규모의 국비(2조5천309억원, 2014년대비 1천609억원 증가)를 확보했고, 회덕 IC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되는 등 미래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HD 드라마타운을 착공하고, 세종시 2단계 수돗물 공급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특허침해소송의 특허법원 관할 집중 법률안 통과로 특허허브도시로서의 도약 기반을 마련했다.

높은 행정수준을 전국에 과시 정부종합평가 3년 연속 최우수, 안전문화대상 최우수, 대한민국 친환경 대상 등 총 53개

부분에서 수상했으며, 이에 따른 인센티브 79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달성, 청렴도시 대전의 위상을 드높였다.

산업

공업 2014년 말 기준 제조업체 수는 7천438개로 음료식품 및 담배 1천298개, 섬유 및 가죽산업 856개, 나무제품 99개, 종이·인쇄 658개, 코크스 및 석유화학 251개, 비금속광물 559개, 제1차 금속 87개, 금속통신 기타 제품제조 3천881개 업체이며, 총 5만8천590명이 고용돼 있다. 2015년 12월 말 수출총액은 43억717만 달러이고 수입은 36억2천367만 달러이다.

농업 2014년 말 기준 농업인구는 9천357가구에 2만7천590명이다. 한 해 동안 논 1천629ha, 밭 2천755ha 등 4천385ha를 경작해 조곡 6천642t, 맥류 4t, 잡곡 127t, 두류 330t, 서류 662t, 채소류 1만8천688t, 특용작물 50t, 과실류 1천286t을 생산했다.

상업 대형마트 14개소, 백화점 4개소, 전통시장 28개소, 기업형 슈퍼마켓 49개소가 있다.

금융 2014년 12월 기준 한국은행 1곳, 시중은행 148곳, 지방은행 8곳, 특수은행 44곳, 신탁회사 240곳, 자산운용회사 247곳, 상호저축은행 6곳, 신용협동조합 44곳, 상호금융 15곳, 새마을금고 42곳, 수출입은행 1곳이 있다.

사회

주택 2015년 말 기준 단독주택 22만6천호, 아파트 32만7천호, 연립 및 다세대주택 44만호로 모두 59만7천호이며 주택보급률은 101.7%이다.

상·하수도 2014년 말 상수도 1일 생산량은 53만2천m³, 급수율은 99.88%로 급수인구 154만6천 명에 대해 1인 1일 평균 308ℓ 씩의 수도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인구(2015년 기준)는 총인구 156만133명 중 15만8천775명, 처리구역 외 인구 4만1천358명으로 97.3%의 하수처리시설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교통 2015년 말 등록차량은 63만2천954대로 승용차 52만538대와 승합차 2만4천673대, 화물차 8만5천844대, 특수차 1천899대이며, 이륜자동차 3만6천396대이고, 주차장은 4만345개소에 64만1천525면이다. 2014년 말 도시 계획상 도로연장은 총 2천267km로서 고속도로 76km, 국도 84km, 시도 2천147km이며, 포장률은 100%이다.

사회복지 대전시민복지기준 마련을 위해 전문가,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7월 1일)을 통해 급여지원 대상을 확대(1만694명)했으며, 여성새일센터, 청소년위캔센터, 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를 개소하는 등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2천114억원)을 지급하고,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해 대전인생 이모작지원 센터를 개소했으며,

장애인 복지일자리(1천291명) 지원, 청각장애인을 위한 손소리 복지관 개관 등 아이, 어르신,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환경 2014년 말 기준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일 1천257t이며, 이중 매립 14.6%, 소각 22%, 재활용 63.4%로 처리된다.

2015년도 말 기준 대기오염도는 아황산가스 0.004ppm/year, 이산화질소 0.019ppm/year, 미세먼지(PM-10) 45(μg/m³)/year 이고, 수질오염도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1.4mg/ℓ, 수소이온농도 7.5 pH, 부유물질량 2.9mg/ℓ, 용존산소량 9.9mg/ℓ 이다.

보건·후생 2014년 말 기준 의료기관은 총 2천123개소로 종합병원 9개소 5천585병상, 병원 33개소 3천68병상, 의원 1천11개소 3천857병상, 특수병원 7개소 1천630병상, 요양병원 51개소 8천308병상, 치과병원 5개소 52병상, 치과의원 501개소, 한방병원 5개소 428병상, 한의원 492개소 140병상, 부속의원 8개소 43병상, 조산원 1개소,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20개소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일반수급자 2만4천618가구 4만133명, 시설수급자 134개소 3천336명이다.

교육·문화

교육 2015년 학교 수는 총 320개교로 초등학교 146개, 중학교 88개, 고등학교 62개, 특수학교 5개, 대학(교) 19개이며, 학생 수는 33만5천876명이다.

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는 보물 11개(대전 회덕동 춘당, 예념 미타도량참법, 채제공초상 금관조복본 및 흑단령포본, 이시방 초상, 성수침 필적, 통영축우대, 송준길행초서증손병하, 대전 비래사목조비로자나불, 목은이색초상, 묘법연화경삼매참법(권상)와 사적지 17개(계족산성), 천연기념물 17개(괴곡동느티나무), 등록문화재 20건, 지방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52개, 무형문화재 21개, 기념물 46개, 민속문화재 3개, 문화재자료 55개 등 177개가 있다.

문화시설 중부권 최고시설로 자리매김한 대전예술의전당과 시립미술관, 이응노미술관의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는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하고 있다.

한밭도서관을 비롯한 총 24개의 공공도서관과 215개소의 작은 도서관이 조성돼 있으며, 10개 영화상영관, 1천300석 규모의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외에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가톨릭문화회관, 한남대학교 성지관, 우송예술회관 등 59개의 공연장과 56개의 전시시설 등 문화예술 공간이 있다.

체육시설 2015년 말 기준 공공체육시설은 육상경기장 3곳, 축구장 13곳, 야구장 1곳, 수영장 17곳, 사이클경기장 1곳, 양궁장 1곳, 국궁장 5곳, 승마장 1곳, 빙상장 1개 및 체육관 18개 등 93곳의 시설이 있다.

등록체육시설로 골프장 3개소가 있고, 신고체육시설로는 종합체육시설 7곳, 수영장 25곳, 체육도장 449곳, 당구장 622곳, 골프연습장 266곳, 체력단련장 276곳, 썰매장 2곳, 빙상장 1곳, 무도학원 54곳, 무도장 1곳 등 총 1천703개소가 있고, 이외에 시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358개소의 지역밀착형 마을체육시설이 있다.

문화행사 대전시의 첨단과학기술과 지역전통문화 등을 주제로 하는 축제로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대전국제와인페어, 견우직녀축제, 전국합창경연대회와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 유성온천문화축제, 금강로하스축제, 동춘당문화제, 우암문화제, 정월 대보름 행사와 민간에서 추진하는 계족산 맨발걷기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있다

관광 '주랜드+플라워랜드+조이랜드'를 복합적으로 구성해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종합테마 공원으로 조성된 오-월드, 전국 유일의 '효'테마공원인 뿌리공원, 1994년 관광특구로 지정된 유성온천, 응봉정이 문화의 거리(스카이로드), 한밭수목원, 장태산 자연휴양림, 대청호오백리길, 계족산항토길, 대전둘레산길 등의 관광지가 있다.

대전의 관광영소를 저렴한 가격으로 편하게 둘러볼 수 있는 지역순환관광 프로그램인 대전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숙박시설인 관광호텔은 20개소로 1천771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해외 자매결연도시 11개국 13개 도시로서 중국 난징·선양, 미국 시애틀, 헝가리 부다페스트, 일본 오다·삿포로, 캐나다 캘거리,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웨덴 읍살라,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시, 호주 브리즈번시, 베트남의 빈증성,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의회활동

원구성

〈의장〉 김인식

〈부의장〉 황인호, 심현영

〈정당별 의원 현황〉 더불어민주당 16명, 새누리당 6명이다.

의안처리 정례회 2회(제1차 28일, 제2차 42일), 임시회 4회(58일) 등 총 6회 128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조례안 266건, 예산 및 결산 12건, 동의안 28건, 결의안 6건, 규칙안 4건, 건의안 23건, 의견청취 9건, 기타(보고) 74건 등 모두 4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행정사무감사 각 상임위원회별로 총 48개 부서·기관을 감사해 그 중 시정요구 76건, 촉구 65건, 건의 161건, 검토 168건 등 총 470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예산심의 본예산 1회, 추경 3회에 걸쳐 총 4차례 심의했으며, 2016년도 대전광역시 본예산 3조8천546억원, 교육비특별회계 1조6천102억원을 확정하는 등 총 5조4천648억원을 심의의결했다.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9명), 행정자치위원회(5명), 복지환경위원회(5명), 산업건설위원회(6명), 교육위원회(5명)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9명), 대전의료원설립추진특별위원회(8명), 윤리특별위원회(8명), 시민안전특별위원회(7명), 국립철도박물관유치특별위원회(8명)로 구성되어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상황실'을 운영해 29건의 의견을 접수·처리했으며, 진정 및 인터넷 민원을 통해 시민 불편과 고충 68건을 되짚어보고 해결하는 등 시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용했다. 또한, 다양하고

생생한 의정활동 정보를 담은 의정 소식과 인터넷 방송, 본회 의장 개방(2천188명 방청) 및 의정홍보관 운영(7천4명 견학)을 통해 시민 누구나 의회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 다양한 의정 참여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생활의정 실천 원도심활성화 연구회 등 연구회가 있고, 상임위 소관업무 중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정책을 주제로 58회의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를 열었다. 사업과 생활현장을 방문해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는 '생활 의정'을 실천했다.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개발 등 의정활동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조례, 대전의 역사 문화 뿌리찾기 활동지원 조례 등 113건의 안건을 의원 발의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개발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의정 활동을 수행했다.

시민·소외계층 배려 성락사회복지관 등 11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거동 돌보기, 위문품 전달 등의 봉사활동을 실천했다.



울산광역시

市花 : 장미 市鳥 : 백로

市木 : 대나무 캐릭터 : 해물이

시청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시장 : 김기현(金起炫)



개관

연혁 선사시대 이래로 넉넉한 생활의 터전을 형성해 온 울산은 삼한시대에는 진한에 속했으며 신라 제5대 파사왕 때 굴야화촌에 현을 두고 남쪽에는 생서랑군, 동쪽에는 동진현, 언양지방에는 거지화현을 두고 있었다.

이후 고려 태조 때 하곡, 동진, 오펡의 3현을 합해 흥례부(흥려부)로 승격시켜 비로소 한 고을로서 오늘의 기반을 구축했으며, 성종 14년(995년)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전국을 449현으로 분할하면서 흥려부를 공화현으로 낮추고 별호를 학성이라 했다.

조선 태종 13년(1413년)엔 울주를 울산으로 고쳐 처음으로 '울산'이라는 칭호가 등장하게 됐다.

선조 31년(1598년) 울산도호부로 승격됐다가 고종 32년(1895년) 울산도호부가 울산군으로 개칭됐다.

근대에 들어 1914년 연양군이 울산군에 병합됐고, 울산의 태화강 이남의 삼산, 달동, 신정, 옥동지역을 합해 울산면으로, 하부면과 내상면을 하상면으로 하고 현남면과 현북면을 합해 대현면이라 개칭했다.

1931년에는 울산면을 울산읍으로, 1934년에는 동면을 방어진읍으로 승격시켰다.

1944년 대현면을 울산읍에 편입시켜 출장소를 뒀다가 1946